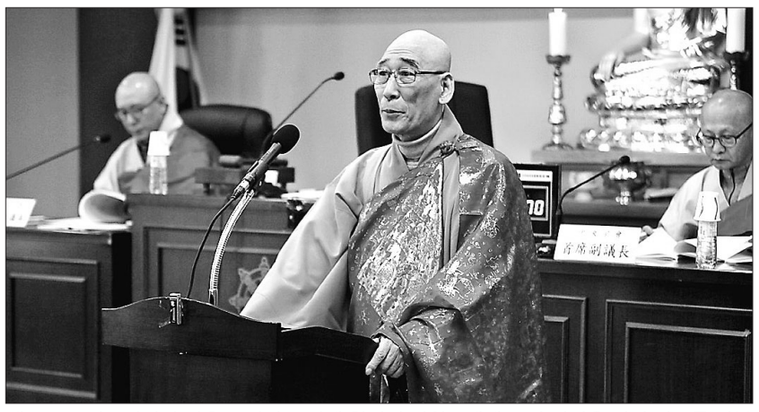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설운 스님이 종회에 참석한 의원들에게 종단 발전을 위한 양보를 당부하고 있다.

태고종 승려의무금 인상 추진

1월 23일 중앙종회서 결의… 부채해결 위해

태고종 중앙종회가 종단 부채 해결을 위해 승려의무금을 일괄 인상했다.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설운)는 1월 23일 서울 전통문화전승원에서 제127회 임시 중앙종회를 열고, 승려 의무금 인상 외 총무원 부원장과 교육부원장 선출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해임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재적의원 52명 중 35명의 종회의원이 참석한 이날 임시회에서 종회의장 설운 스님은 "전통종단의 위상을 재정립하며 미래지향적인 종단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보가 필요하다"며 "무의미한 논쟁을 중단하고 종단 발전을 위해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현재 태고종 승려의무금은 12만원이다. 이를 30만원으로 인상 시 총 승려수 3600명을 기준으로 매년 6억4000만원가량 추가 확보될 것으로 예측된다. 인상은 4년 한정 기간으로 2017년부터 실시된다.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은 "재정건전성을 위해 현실적인 대안으로 승려의무금 인상안 이외에는 다른 선택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중앙종회는 총무원 부원장에 백운 스님, 교육부원장에 묵원 스님을 선출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혜일 스님의 해임 동의안도 통과시켰다. 또 고시위원장에 지홍 스님을, 중앙선관위 부위원장에 광진 스님을 선출했으며 원로의원에 동우 스님을 추천했다.

이와 함께 총무원 종무원 직제 개편을 담은 종법 개정안과 지방종무원장, 지방종회의장, 지방종회의원의 자격 기준을 하향시키는 지방종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돈관 스님, 은해사 주지후보 당선

1월 23일, 주지후보 선출 산중총회서 만장일치로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차기 주지후보에 現주지 돈관 스님〈사진〉이 당선됐다.

은해사는 1월 23일 경내 도선당서 차기 주지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열고, 단독후보로 출마한 돈관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산중총회에는 구성원 92명 중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서 돈관 스님은 "문도스님과 대중스님들의 뜻을 받들어 문중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화여고를 비롯한 교육불사와 사찰정비를 마무리하고, 가람수호에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은해사 주지후보 선출은 경선 후보였던 불산 스님의 후보직 사퇴에 따라 돈관 스님 단독후보로 변경돼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상황이었다. 총무원서 주지 임명장이 수여되면 돈관 스님은 은해사 주지 3선을 지내게 된다. 임기는 오는 3월 5일부터 4년간이다.

돈관 스님은 일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8년 10월 해인사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9년 3월 송광사서 구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하양포교당, 환성사 주지, 제14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으며, 2008년부터 은해사 주지를 맡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은퇴출가제도 대폭 수정… 2월중 공청회

권리 제한하되 승려 준하는 지위 부여
출가특위 수정안 논의, 수계는 갈마로

지난해 11월 조계종 중앙종회서 부결된 은퇴출가제도가 공청회 등을 거쳐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조계종 출가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수암, 이하 출가특위)는 1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서 제8차 회의를 열고, 은퇴출가자 특별법 수정안을 논의한 뒤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회의서는 기존 은퇴출가자 특별법에 제기된 논란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수정안을 놓고 위원들 간 의견을 조율했다. 중앙종회에 처음 발의된 특별법은 출가자의 지위를 '은퇴 후 사찰에 거주하며 불법수행과 자비보살행을 수행하는 자'로 규정해 논란이 발생했다. 특히 삭발염의를 하지만 8계 및 보살계만을 수지하도록 해 스님과 차별을 두면서 '수행법사' 수준에 머무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지난해 11월 중앙종회서 3독회 축조심의까지 실시했지만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은퇴출가 '수행법사' 논란에
구족계 수계 가능케 선회
별도 교육체계 필요성 공감
복지혜택 남용 예방 조항도

반면 출가특위 내부간담회 등을 거친 수정안은 은퇴출가자에게 '승려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했다. 은퇴출가자에 대한 개념을 승려로 해석한 것이다. 다만 악용될 소지가 있는 법계품수 · 선거권 및 피선거권 · 종무직 취임 등과 관련된 권리는 제한했다. 또한 늦은 나이에 출가해 승가의 복지혜택만 누릴 수 있다는 우려를 없애고자 은퇴출가자 정의에 '사회 각 분야서 15년 이상 활동한 자'라는 단서를 달아 개인 복지를 어느 정도 스스로 해결하게 했다.

법안 수정에 많은 부분을 담당한 주경 스님은 "조계종단 승려가 되고 싶지만 나이제한으로 인해 타종단서 출가했다는 보도가 몇 번 있었다. 이에 우리 종단도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지난해 제출된 법안에서는 은퇴출가자 개념이 특수포교사 정도에 머물렀다"면서 "승려법과는 별도로 권한을 조금 제한하더라도 승려 대우는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수행정진 할 수 있는 길을 반듯한 모양으로 열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은퇴출가 절차는 3단계로 이뤄진다. 우선 행자로서 3년간 사찰서 공동생활을 한 뒤 세속의 인연을 모두 끊고, 출가독신자인 경우 갈마를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할 수 있다. 이때 출가독신자가 아닌 경우에도 행자 신분은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사미(니)로서 10년간 수행정진과 교화활동을 한 자에 한해 갈마를 하고 구족계를 수계한다. 또 은퇴출가자에게 승려법에 의한 기본교육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 교육원이 별도의 교육체계를 수립하고 종령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졌다.

출가특위는 3월 중앙종회 임시회에 앞서 은퇴출가자 특별법 수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2월 중 열기로 했다. 이후 최종적으로 성안해 중앙종회에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위원장 수암 스님은 "법계위원회 · 계단위원회 등 종단 어른들을 모셔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겠다. 특별법을 통해 선의의 불자들을 수용하고자 하는 핵심에 맞춰 접근하자"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신행혁신운동 추진본부 구성해 운영"

포교원장 지홍 스님, 1월 23일 신년회견서 밝혀
교육원 · 대중공사추진위 협력 3월 '신행혁신' 권역별 대중공사 수행 현대화, 전법사 과정 개설



"수행문화 정착을 위해 신도수행체계를 정립하고 생활 수행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에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신행혁신운동을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신행혁신추진본부를 구성해 운영해나갈 것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밝힌 신행혁신 운동을 이끌어갈 구심체가 공개됐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사진〉은 1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대중공사 추진위, 기존 결사추진본부 관계자들과 3차례 실무회의를 가진 상황"이라며 "신행혁신운동을 위한 추진체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포교원이 중심이 되고 대중공사 추진위 등이 협력하는 추진본부를 수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구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포교원은 추진본부를 통해 3월부터 서울, 인천경기, 강원, 충청,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등 8개 권역별로 신형혁신 대중공사를 진행, 신행혁신운동 확산을 꾀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이와 함께 불교사회연구소와 공동으로 신도들의 신행현황을 조사하고, 신도수행학교(신행아카데미) 단기 프로그램을 개발, 시범운영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지홍 스님은 "포교전법은 포교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스님과 사찰이 같이 하지 않으면 좋은 정책을 입안해도 실현 가능하지 않다"며 "특히 종단 내에서는 교육원과 함께 연구하고 종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 '전법신행지도자(가칭)' 과정의 신설을 통해 신행혁신 운동 주도층으로 양성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지홍 스님은 "신도단체 임원연수 교육과 교육기관별 재교육 커리큘럼에도 신행혁신이 포함돼야 한다. 교육된 불자를 조직화할 뿐만 아니라 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스님은 기존 포교사 제도와의 차이점에 대해 "대중포교를 위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전법사의 개념이 강화된 것"이라며 "포교원이 자격증을 부여해 신행지도에도 새로운 바람을 불어 일으키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지홍 스님은 "기존 불자들은 기복에 편중돼왔고, 이런 문화가 현 시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신행혁신은 결국 한국불교 정통 수행인 지계, 간경, 염불, 참선, 보살행을 현대인들이 접근하기 편하도록 재구성하는 데 방점이 찍혀야 한다"며 "신행청규 제정과 함께 불자들이 생활 속에서 수행하고 봉사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가톨릭 학술교류 나선다

동국대, 2월 7일 안젤리쿰大와

불교와 가톨릭이 종교 간 대화와 학술 교류에 본격 나선다.

동국대(총장 보광)는 "오는 2월 7일 오전 10시 정각원에서 교황청립 안젤리쿰대학과 자매결연식을 열고, 불교-가톨릭 간 대화 및 교류 협력 사업 등을 논의한다"고 1월 24일 밝혔다.

안젤리쿰대학은 1222년 도미니칸회 신부들이 건립한 교황청 종립대학으로 미래 가톨릭 지도자 양성 교육기관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등 세계 150여 명의 가톨릭 최고 지도자(추기경, 대주교, 주교)를 배출해왔으며, 토마스 아퀴나스 철학과 사상을 따르는 토미즘 중심대학 기능을 하고 있다.

자매결연식에는 총장 보광 스님을 비롯해 불교대학 교직원들이 참여하며, 안젤리쿰대학 측에서는 스테판 쥬릭 신학대학장 신부, 미켈 푸스 신부, 이재숙 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자매결연식 이후에는 미켈 푸스 신부가 '불교와 가톨릭 간 교류사례 발표 및 양교 간 교류방안 제의'를 주제로 특강도 개최한다.

한편 안젤리쿰대학 방문단은 2월 8~9일까지 해인총림 해인사서 템플스테이를 체험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

옥천범음대학 2017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옥천범음대학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를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불교의식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졸업자에게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으로 지정

신입 및 수료 과정					
모 집		교수내용	요일	시 간	모집인원
1학년	상주권공 I	불공 / 시식 / 예불 / 상주권공 및 작법	월	오후 1시 ~ 7시	30
2학년	상주권공 II	시련 / 대령 / 관욕 및 상주권공재의식 시연	수	오후 1시 ~ 7시	편입생 약간명
3학년	각 배	각배과정	목	오후 1시 ~ 7시	편입생 약간명
4학년	영 산	영산과정	금	오후 1시 ~ 7시	편입생 약간명
불교의식 이론		영산재의 행위전승학습	화	오후 1시 ~ 4시	*

■ 응시자격

❶ **입학과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 무용과) 등 일반인

❷ **편입과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❸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 1부,
주민등록등본 ····· 1부,
반명함판 사진 ·····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 1부(해당자)

❹ **전형일정** : **2017년 1월 16일 ~ 2월 17일**

❺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행정처 및 홈페이지

❻ **특 전** :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혜택 부여하고, 국내외 공연 시 우선 선발

❼ **입학문의** : 전화 (02)392-3234 / 팩스 (02)392-3239
03721 서울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홈페이지 : www.okchunbud.kr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 **옥천범음대학**